SU-C51

# 경기북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급성신우신염의 Ciprofloxacin 항생제 내성 및 결과 분석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학교실

곽원건 · 신성준 · 김경수 · 이정상

# Ciprofloxacin Resistance Rate and Outcome Analysis of Community-acquired Acute Pyelonephritis in Northwestern Kyungki Province

Won Gun Kwack, Sung Joon Shin, Kyung Soo Kim and Jung Sang Lee

Division of Neph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목 적 :** 급성신우신염에서 경험적 항생제로 **ciprofloxacin**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나 내성률과 연관하여 초기 치료제로서의 효용성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다. 이에 저자들은 경기 북서부 지역에서 경험한 급성신우신염 환자를 대상으로 **ciprofloxacin**에 대한 내성률과 임상적 특징 및 치료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방 법 :** 2006년 1월부터 2007년 1월 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장내과에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한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소변 배양에서 동정된 균과 **ciprofloxacin**의 생체외 내성률을 분석하였다. 임상적 특징과 치료 결과는 환자를 연령별 및 기저질환의 유무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 과 :** 총 106명의 환자 평균 연령은 48±18.3세였으며, 여자 105명 남자 1명 이었다. 이 중 34명 (32.1%)에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항생제로 88명 (83%)에서 **ciprofloxacin**을 단독으로 사용하였다. 입원 시 요 배양검사가 모든 환자에서 시행되었으며 58명 (54.7%)에서 균이 동정되었다. 균이 동정된 58명 중 50명 (86.2%)에서 **Escherichia coli (E.coli)**균이 배양되었다. **E.coli**균을 포함한 배양된 모든 균에 대한 **ciprofloxacin**의 생체외 내성률은 22.4%였으며, **E.coli**균만을 보았을 때 내성률은 24.0%였다. **Ciprofloxacin**에 대한 치료 실패는 내성균에 있어서도 치료한 경우에 발생하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60세 이상에서 기저질환이 많았으나, 발열 및 오한과 같은 증상 및 혈액 검사상 **CRP** 수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요배양 양성률에 있어서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기저질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초음파 검사와 같은 영상 검사가 59명에서 시행되었고 이 중 21명 (35.6%)에서 급성신우신염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특별한 해부학적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없었다.

**결 론 :** 지역사회 획득 급성신우신염의 **ciprofloxacin**의 경험적 사용은 생체외 내성률이 높은 편이지만 아직 치료 실패는 낮아 초기 항생제로서의 사용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내성률의 변화와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임상적 증상이나 검사 결과 및 치료 실패에 있어 연령이나 기저질환 유무가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Key Words :** 급성신우신염, 항생제, 내성률
Acute pyelonephritis, Antibiotics, Resistance